

Apr 27, 2020

Weekly Summary

Drybulker	상승에 대한 완화된 거리두기
Tanker	남은 기름 좀 포장해 주세요
Container	글로벌 소비재 수요 '실종'
Sale & Purchase	사고싶은 탱커 팔고싶은 벌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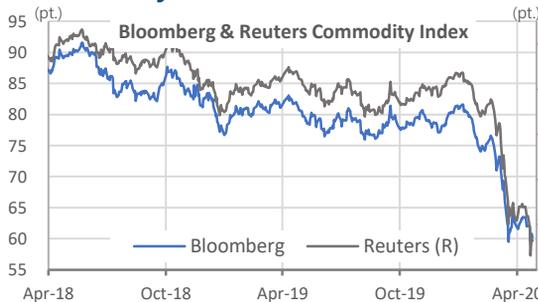
Foreign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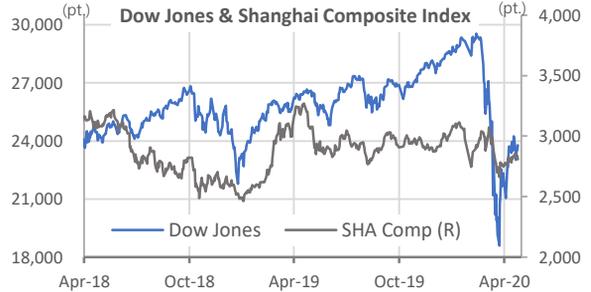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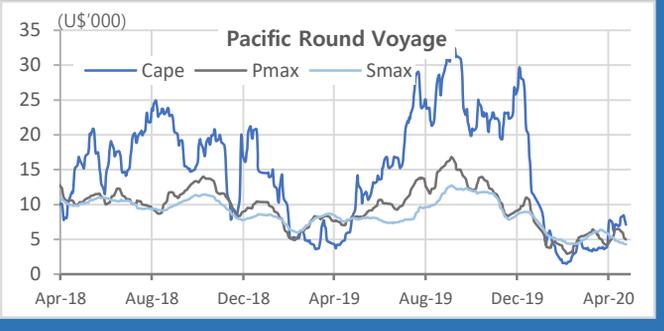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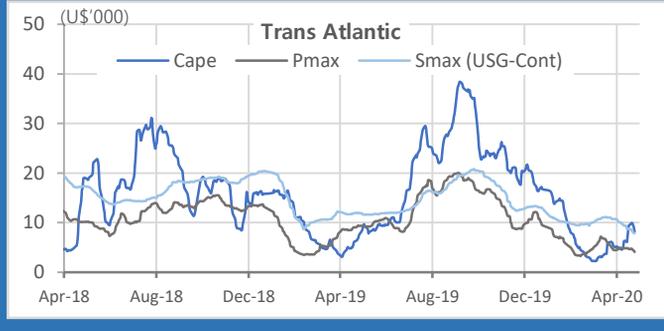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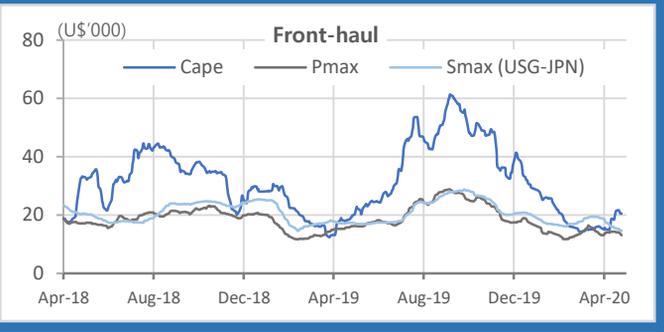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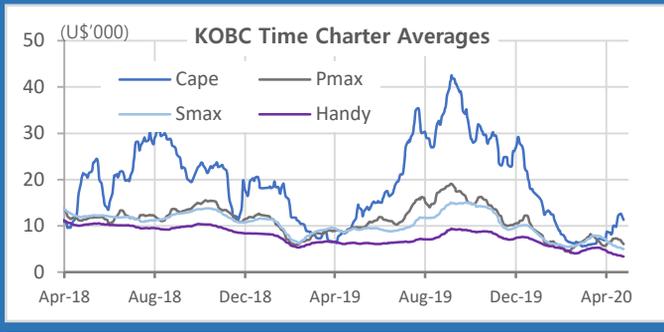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해양강국! 해양민족!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금 주	11,310	20,500	8,125	7,125	6,074	13,080	4,070	4,992	5,030	14,600	7,812	4,310
전 주	12,278	21,450	9,450	8,112	7,081	14,080	4,630	6,183	5,332	15,312	8,625	4,513
증 감	▼ 969	▼ 950	▼ 1,325	▼ 987	▼ 1,007	▼ 1,000	▼ 560	▼ 1,191	▼ 302	▼ 712	▼ 813	▼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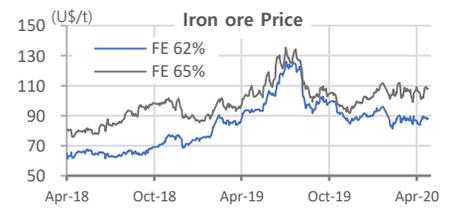
C A P E

- 주 초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인한 시장심리 악화 및 4월 선적 화물 정리 이후 성약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전 수역에 걸친 하락세 구현
- 세계 주요 국가들의 3월 철강 생산량(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인 점은 수요 부진을 반증
 - 3월 조강생산량 중국 2%, EU 20%, 북미 9%, 일본 10%, 인디아 14% 감소
 - 국제 철강가격 하락에 따라 일부 중국 제철소들이 저가의 반제품인 빌릿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철광석 수요 부진 우려 가중됨
- 주요국 봉쇄 완화는 긍정적이거나, 철강 가격 약세는 수요 회복을 제한할 전망
 - 인디아와 남아공 봉쇄 완화, 유럽 제철소 가동률 상승 등으로 저점 통과 중
 - 그러나 철강 가격 약세에 따른 제철 마진 부진은 철광석 수요를 제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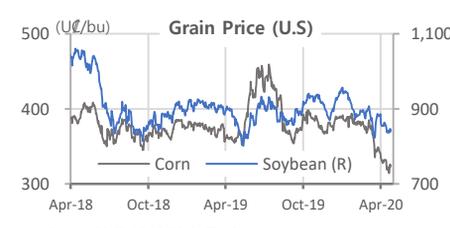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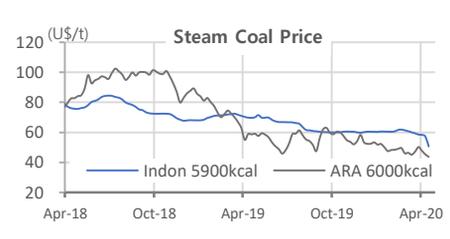
P M A X

- 석탄을 포함한 광물 화물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미 수역의 ballaster 유입 증가에 따른 공급 압력으로 하락세
- 브라질 대두 수출은 풍부한 수확량과 기록적인 해알화 약세의 효과로 호조
 - 선박 라인업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4월 브라질 대두 수출량은 약 1,47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석탄 물동량 침체로 태평양 수역 내 자체 수요 부족이 이어지며 남미항 ballaster가 지속 증가하는 점이 시황 상승을 제한함
- 남미 효과가 이어지는 한편, 미국의 옥수수 수출도 당분간 지속될 것
 - 유가 폭락으로 미국 내 에탄올 수요 감소 / 원료인 옥수수 수출여력 증가
 - 석탄 수요도 소폭 회복이 전망되나, 라마단 기간 중 활동성은 침체 예상



S M X · H D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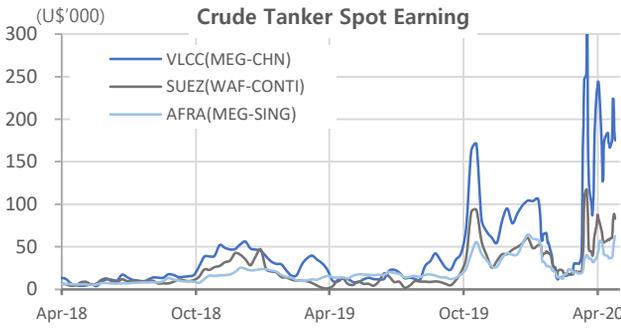
- 주 후반 주요 수역 내 화물 증가에 힘입어 장기 하락을 마감하고 저점 확보
- 인디아 일부 지역의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인디아항 석탄 화물이 시장에 다시 나타난 점은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킴
 - 그러나 해안가 발전소들의 석탄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디아 내 석탄 재고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이 맞서며 향후 전망은 아직 불투명
 - 인도네시아 석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유리한 내수 판매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도 해상물동량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식량 안보를 위한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 6월 말까지 부여된 수출 quota가 5월 중순 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흑해 시황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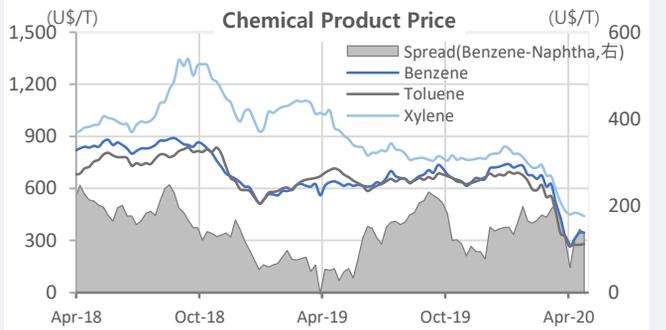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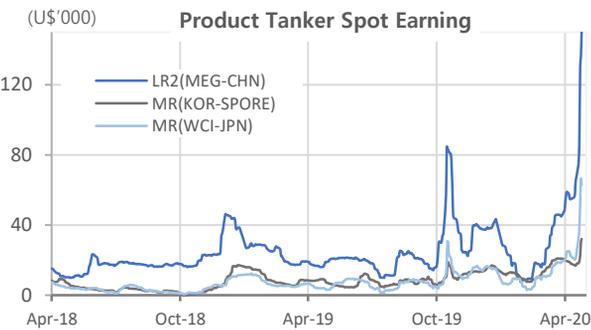
Crude Tanker



- 유가 급락에 따른 해상 Storage 수요 지속되며 강세장 유지되었으나, 5월부터 시행 예정인 OPEC+ 감산의 영향으로 신규 물동량 침체되며 시황 하락
 - 주초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단기 저장 수요 일시 증가함. 그러나 유가가 곧 반등하며 저장 수요에 기반한 상승세는 단기에 그침
-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증가 및 정유사의 밀어내기 물량 증가 영향으로 제품선도 Storage 수요 급증
 - 전주대비 LR2 120%, MR 80% 상승

Route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i.)		Aframax (MEG-SPORE)	
WS	155.42	▲ 5.00	169.77	▲ 37.72	202.22	▲ 68.33
일수익	175,250	▲ 8,454	83,059	▲ 23,438	62,387	▲ 25,822

Product Tanker & Chemic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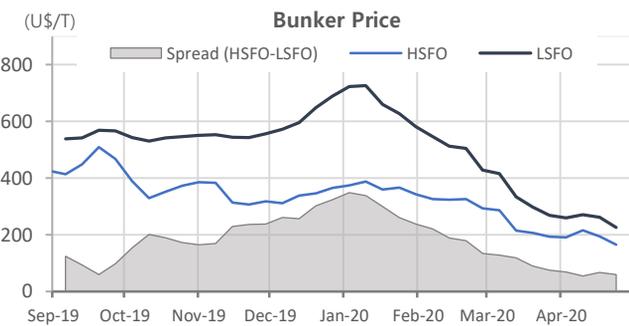


LR2	MEG-CHINA		MR	KOR-SPORE	
WS	503.13	▲ 258.13	\$/Ton	23.74	▲ 8.84
일수익	149,902	▲ 81,553	일수익	32,067	▲ 14,099

Price	Benzene		Toluene		Xylene	
\$/Ton	345	- 0	280	▲ 5	440	▼ 13
Spread*	138	▼ 8	73	▼ 3	233	▼ 21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Bunker Price



- (국제유가) 전세계 재고증가로 인한 실물 인수 거절로 5월 선물의 이월물량 급증. WTI는 배럴당 -U\$37.63까지 급락, 이후 U\$16.94로 회복
 - 5월부터 시행되는 OPEC+의 감산, 미국 석유 시추설비 수 감소는 유가 회복요인으로 작용
 - 전 세계 해상 Storage 규모는 2주전 대비 2배 증가한 1.6억 배럴로 추정(Reuters)
- (연료유가) 연료유 수요 부진 및 높은 재고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원유가 급락이 나타나며 하락세 지속

구분	WTI (U\$/bbl)	HSFO (U\$/mt)	LSFO (U\$/mt)	Spread (U\$/mt)
Price	16.94	165.50	225.50	60.00
증감	▼ 1.33	▼ 29.00	▼ 36.50	▼ 7.50

* Singapore 기준, 전 주 대비 증감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lobal Market Focus



운임지수(SCFI) / 용선지수(HRCI)



항로별 운임지수

	금주	전주	+/-	'20평균	+/-
美서안	1,495	1,528	▼ 33	1,521	▼ 26
美동안	2,620	2,637	▼ 17	2,775	▼ 155
유럽	753	725	▲ 28	855	▼ 102
지중해	844	841	▲ 3	977	▼ 133
동남아	186	199	▼ 13	195	▼ 9
중동	650	708	▼ 58	986	▼ 336
호주	929	872	▲ 57	883	▲ 46
남미	886	919	▼ 33	1,536	▼ 650
日서안	234	234	-	227	▲ 7
日동안	243	243	-	240	▲ 3
한국	120	120	-	119	▲ 1
동서Africa	2,752	2,762	▼ 10	2,854	▼ 102
남Africa	788	809	▼ 21	986	▼ 198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용선 성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A	11개월	5,000	▼ 100	4월3주
피더 1,100	A	1개월	5,900	▼ 2,000	4월3주
피더 1,600	A	3개월	9,500	▲ 1,500	4월3주
피더 2,200	A	2개월	8,400	▼ 2,700	4월3주
피더 2,700	A	5개월	9,000	▼ 100	4월3주
내로우빔 5,000	A	5개월	10,400	▼ 2,500	4월3주
와이드빔 5,500	B	12개월	17,000	▲ 500	4월2주
중형 7,000	A	5개월	18,000	▼ 3,500	4월3주
중형 9,000	A	12개월	23,000	▼ 6,000	3월3주

*A : '04년 이후 / B : '00~'04년 / C : '00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시장 동향

- (종합) 17주차(4/19~4/25) SCFI 종합지수는 '818p'로 전주 대비 '11p' 하락. 아직까지는 주요 수출입국의 단계적 봉쇄 해제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시점을 예단키 어려운 상황. 각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컨선 시장 내 실질적인 물동량 회복으로 귀결되는 시점은 빨라야 북반구의 하계 휴가시즌이 끝나는 늦여름 정도로 예상
- (미주항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올 초여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북미 수입수요 위축 지속. 이에 5월1일부 예정된 일괄운임인상(GRI)은 발효와 동시에 빠르게 하향 조정 또는 캔슬될 전망
- (유럽항로) 상반기 중 물량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럽, 지중해 항로 헤드홀의 6월 임시결항 스케줄이 연이어 발표됨. 극동~유럽 구간 운항선사들의 가용 선박량 감축을 통한 손실 최소화 노력은 2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연근해/기타) 주요 수출국의 Lockdown 연장 소식이 시장 심리를 추가 압박. 단거리(한중일)와 중장거리(동남아, 인도, 중동)를 막론하고 물량 감소와 운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공급 합리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기항지 변경, 임시결항 증대 등)

주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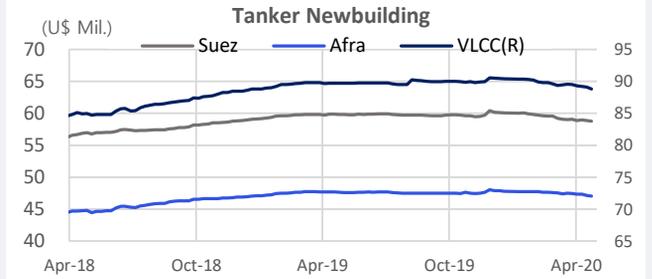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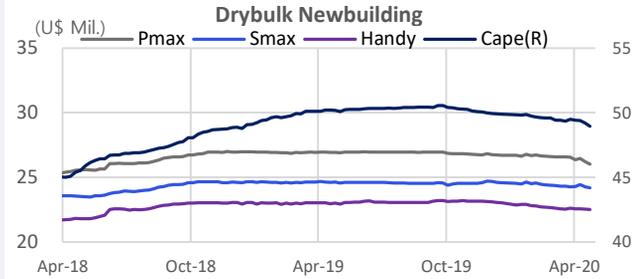
- 『APL(CMA CGM 자회사 브랜드), '20.7월부터 북미노선 전용 브랜드로 탈바꿈』 (JOC - 2020.4.22)
 - CMA CGM은 '16.7월 인수 완료한 APL이 올 7월부터는 북미항로 전용 브랜드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 발표. 그 동안 APL이 제공해온 인도, 중동, 남미 노선 등의 중장거리 서비스는 모기업(CMA CGM)이 전담키로 함에 따라 전담기간이 확정된 대형 자회사들(CNC ⇄ 아시아 역내, APL ⇄ 북미)의 담당 항로 내 서비스 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
- 『컨테이너선 스크러버 설치 지속, 국제 유가 폭락에도 불구 장차 수요 견조세 유지』 (알파라이너 - 2020.4.22)
 - 유가 하락으로 스크러버 프리미엄이 하락한 상황이나 선사와 선주들의 설치 니즈는 유지되고 있어 이달에만 벌써 20척의 컨선이 개조를 위한 입거 완료(4월 4주차 현재 총 90척 개조 진행 중). 한편 중국 수리조선소의 가동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며 (2월 이후 4월 현재까지 총 76척 장차 완료) 5월에도 스크러버 설치의 중대형선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유럽계 포워더 헬만(Hellmann), 지연운송(Suspension Of Transit) 서비스 면밀히 살펴봐야』 (로이드리스트 - 2020.4.22)
 - 150년 전통의 독일 포워더 헬만은 선박량 상위 컨선사들이 최근 소개한 지연운송 서비스(환적항만 또는 도착항만을 참고처럼 이용하여 재고 공간이 부족한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채로 임시 보관해주는 개념)를 '기본적으로는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정시에 화물을 찾고자 하는 일부 화주들에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지연운송 보다는 헬만 창고로의 적기운송이 우선'임을 강조

※ 자료 : 상해항운교역소, Howe Robinson, 주요 전문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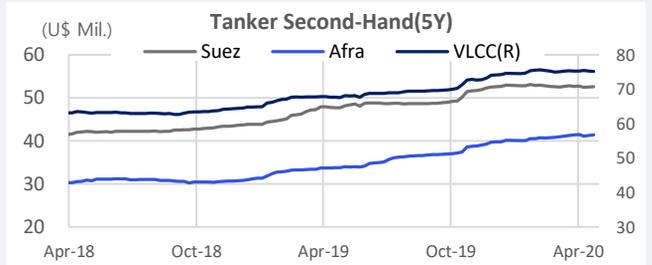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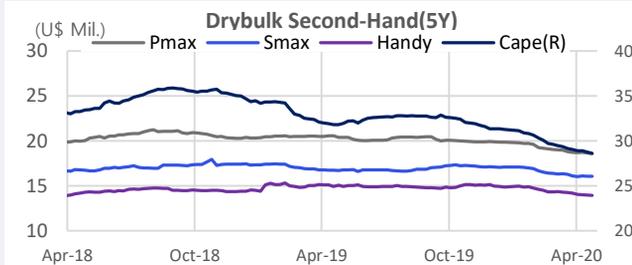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48.96	▼ 0.23	49.52	50.13	48.81	▼ 0.11	49.45	50.61
	P'max	76-82K	26.02	▼ 0.20	26.55	26.90	26.12	-	26.42	26.92
	S'max	56-61K	24.19	▼ 0.08	24.40	24.58	25.15	▼ 0.10	25.38	25.57
	Handy	32-37K	22.52	▼ 0.02	22.67	23.06	21.82	▼ 0.04	22.15	22.69
Tanker	VLCC	310K	88.81	▼ 0.28	89.67	89.79	98.55	▼ 0.21	99.97	94.60
	Suezmax	160K	58.79	▼ 0.08	59.39	59.75	68.10	▲ 0.12	68.79	64.82
	Aframax	105K	47.06	▼ 0.10	47.53	47.59	53.53	▲ 0.04	53.68	4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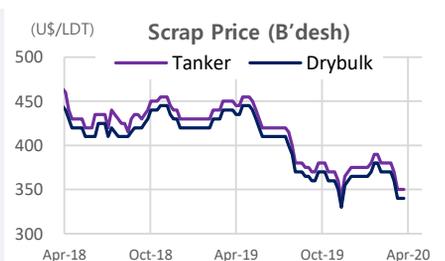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28.61	▼ 0.16	29.71	32.56	19.05	▼ 0.19	20.12	22.77
	P'max	76-82K	18.58	▼ 0.09	19.10	20.26	11.77	▼ 0.08	12.28	12.96
	S'max	56-61K	16.06	▼ 0.02	16.46	16.99	10.69	▼ 0.07	11.46	12.33
	Handy	32-37K	13.94	▼ 0.02	14.40	14.97	7.35	▼ 0.45	8.13	9.88
Tanker	VLCC	310K	75.12	▼ 0.11	75.20	69.28	50.07	▲ 0.17	50.65	45.69
	Suezmax	160K	52.60	▲ 0.07	52.72	48.51	35.94	▲ 0.05	35.61	31.79
	Aframax	105K	41.38	▲ 0.13	40.89	35.55	29.51	▲ 0.06	29.06	23.52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Bulker	-	-	375	387	-	-	363	398
Tanker	-	-	385	397	-	-	373	408



※ 인디아 등 봉쇄령 실시로 가격 공지 잠정 중단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MS



KOB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Corp.		Jangsoo Shipping Co., LTD.		Flaship PTE. LTD.		Maritime Shipbrokers Co., LTD.
	Daesang Shipping Co., LTD.		Basim Chartering Corp.		Max-Bridge Co., LTD.		Greatwall International Marine LTD.
	Ace Chartering Corp.		Kaya Shipping Co., LTD.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ipbroking Services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Co., LTD.		MARS CO., LTD.		Evershine Consulting CO., LTD.		
	Ocean Robin Shipping Holding Corp.		Good Turn Transportation LTD.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Co., LTD.		For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Co., LTD.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PTE. LTD.
	Kims Maritime Co., LTD.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Co., LTD.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Global		HIT Marine Company LTD.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Tienfung Shipping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Alliance Tanker Chartering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CO LTD.		Euroline Global
	Tradlinx						